정신문화연구 제41권 제4호(통권 153호) 301-326쪽 研究論文

북한의 통일전선 변화와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정책

김선호
인천가톨릭대학교 강사, 한국현대사 전공
musoyu53@gmail.com

Ⅰ. 머리말
Ⅱ. 1947년 북한의 통일전선과 인민정권
Ⅲ.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정책
Ⅳ. 당·정·군의 반혁명세력 배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1947년은 한반도의 정치질서가 급격히 변화한 시기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의 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규정한 것은 연합국의 전후질서였다. 미국·영국·소련은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부터 개최되었지만, 미·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5월에 무기한 휴회되고 말았다.

남과 북은 미·소공위가 휴회된 이후 각각 자체 지역에 임시정부의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1946년 9월 11일 미군정 통위부장에 한국인을 임명하고,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남조선국방경비대사령부를 각각 조선경비대와 조선경비대총사령부로 개편하였다. 12월 17일에는 통위부에 참모총장제를 신설하고, 한국인 참모총장이 조선경비대를 지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로써 경비대의 임무는 종래의 경비임무를 넘어서 국가 전반에 걸친 방위임무로 확대되었다. 미군정은 1947년 5월 17일에 군정청의 한국인기관으로 남조선과도정부를 설치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입법·행정·사법부문의 권한을 부여하였다.[1)]

소련군사령부와 북한정치세력[2)]도 북한지역에 임시정부의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소련과 북한은 1946년 8월 15일에 군사지휘기관으로 보안간부훈련대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창설했으며, 8월 28일에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북조선로동당을 창당했다. 1947년 2월 22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경상적(經常的) 인민정권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5월 17일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北朝鮮人民集團軍總司令部, 이하 집단군총사령부)"로 개편하였다.[3)] 그 결과 1947년도에 들어서 북한지역에는 향후 임시정부의 기간이 될 당·정권기관·군대의 기본형태가 완성되었다.

대대부와 집단군총사령부는 둘 다 군사지휘기관이었지만 성격이 달랐

---

1) 백기인, 『建軍史』(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05-110쪽.

2) 이 글에서 '북한정치세력'이라는 용어는 국내공산주의세력, 동북항일연군 출신,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 출신, 소련에서 입북한 고려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해방과 건군』(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91쪽.

다. 대대부는 그 명칭에서도 보이듯 경찰간부를 훈련시키는 대대급 지휘부로 위장하고 있었다. 소련군사령부는 미군정과 국제여론을 의식해 대대부를 경찰본부로 위장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비밀'로 취급했다.[4] 그러나 집단군총사령부는 명칭부터 북한의 연합부대를 지휘하는 군사지휘기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북·소 양측이 1947년도에 군사지휘기관을 드러낸 것은 북한지역에서 사회개혁을 통해 이른바 '민주기지(民主基地)'가 구축되면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일정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집단군총사령부를 독립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는 없다. 집단군총사령부에 대해서는 조선인민군의 창설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해명되었다. 선행연구는 집단군총사령부의 편제, 일부 간부의 이름, 계급제도, 예하부대 등을 해명하였다.[5]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집단군총사령부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 등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이 해명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정책은 북한의 통일전선노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북조선로동당은 통일전선노선에 입각해 1947년도에 경상적 인민정권을 수립하였고, 군대를 내부적으로 개조하였다. 이 글은 1947년 당시 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구성과 간부정책을 북한의 통일전선과 관련해 해명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해명하기 위해 주로 『북한관계사료집』에 수록되거나 새로 발굴한 미군노획문서(U.S. NARA collection of the seized documents in the Korean War)를 활용하였다. 특히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보안처에서 생산한 비밀문서를 활용해 1947년 당시 북한의 내부적인 정치·군사 상황을 새롭게 파악하였다. 또한 이 글은 주한미군 정보참모부가 1946년부터 정기적으로 생산한 『주한미군 북한정보요약(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을 활용해 북한·중국·소련

---

4) 중앙일보특별취재반 편, 「유성철의 증언」,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중앙일보사, 1992), 71쪽.

5) 조선인민군의 창설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을 참조바람.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문당, 1991), 44-178쪽;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체제의 수립과정』(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139-176쪽;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33-62쪽; 김광운, 「전쟁 이전 북한인민군의 창설과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1(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3-53쪽;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한울아카데미, 2006), 63-84쪽.

관계와 군사간부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문헌과 인민군 창설에 참여한 인물의 회고자료를 통해 북·중관계, 군대 내부의 동향과 변화를 파악하였다.

Ⅱ. 1947년 북한의 통일전선과 인민정권

북한지역은 1947년 1월에 제1단계·제2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의 핵심적 개혁이 완료된 상태였다. 1946년 3월 30일에 북한지역에서 제1단계 혁명의 중요과제인 토지개혁이 종결되었고, 7월 30일에는 「북조선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이 공포되었다. 8월 10일에는 「산업·교통·운수·체신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어 제2단계 혁명의 출발점인 중요산업에 대한 국유화조치가 단행되었다. 나아가 북조선로동당은 11월 3일에 북한 전역에서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각 도에서 주민들을 대표해 총 3,459명의 인민위원회 위원이 선출되었다.[6] 이 선거는 임시적 인민정권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민주개혁'과 인민선거를 거치면서 북한지역은 이른바 한반도의 '민주기지'로 변모하였다.

북조선로동당은 1947년에 들어서 통일전선의 범주를 변화시켰다. 노동당은 '민주주의원칙을 무시한 무조건통일'에 대해, "무조건통일은 우리들의 기본적 투쟁대상 그 자체인 친일파·민족반역자 내지 그들의 온상이며 비호자인 반동적 지주들과의 통일을 긍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무원칙한 무조건통일전선"은 "외래 변상적(變相的) 제국주의정책을 실현시켜 다시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파시스트 이승만·김구들의 음모"라고 규정하였다.[7] 즉, 노동당은 기존에 통일전선에서 배제한 친일파·민족반역자 외에 "반동적 지주"도 배제

---

6) 「해방 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7권(국사편찬위원회, 1989), 602쪽, 634쪽, 640쪽, 656쪽. 『북한관계 사료집』은 이하 『사료집』으로 표기하고 간행정보를 생략한다.

7) 1947년 2월 시점에 북조선로동당이 규정한 통일전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통일전선이란 일정한 투쟁대상에 대하야 공통한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 또는 단체들의 동맹관계이다." 學民, 「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과 勞動黨」, 『근로자』 3·4호(1947년 1·2월), 『사료집』 42권, 252쪽.

해야 하며, 그 배후에 이승만과 김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노동당은 토지개혁과 제1차 미·소공위 이후 제국주의·봉건세력에 대한 투쟁을 넘어서 반혁명세력에 대한 투쟁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북조선로동당은 1947년 1월부터 정권기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입법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월 7일에 선거를 통해 각 지역인민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이 위원들로 북조선인민회의를 창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2월 20일에 창립되었고, 임시인민위원회는 2월 22일에 공식적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위원장은 김일성(金日成), 부위원장은 노동당의 김책(金策)과 조선민주당의 홍기주(洪箕疇)가 선출되었다.[8] 김일성은 "이 중앙기관의 지도 밑에서 우리 북조선인민들은 우리민족의 완전자주독립을 하루 바삐 쟁취하기 위하여 전진하자"[9]는 발언을 통해 북조선인민위원회가 통일정부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지도간부를 정당별로 구분해보면, 민주당원이 2명, 청우당원이 2명, 무소속이 2명, 노동당원이 16명이다.[10]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대외적으로 노동당원·민주당원·청우당원·무소속이 모두 포함된 통일전선정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당의 정권이었다. 각 정치세력 중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위원장 김일성과 부위원장 김책을 통해 북조선인민위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게다가 부위원장 홍기주는 민주당 부당수 최용건(崔庸健)이 조만식(曺晩植)을 숙청하면서 등용한 민주당 중앙위원으로[11] 최용건계열의 인물이었다. 이 당시 군대는 사령관 최용건이 지휘하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관할 아래 정권기관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1947년 2월 20일에 창립된 북조선인민회의는 "조선에 민주주의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북조선인민정권의 최고기관"으로 "북조선의 입법권

---

8) 「해방 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사료집』 7권, 664쪽, 670-674쪽.

9) 金日成, 「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를 結束하면서」(1947년 2월 20일), 『金日成 重要報告集: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樹立의 길』(民主朝鮮出版社, 1947년 1월 1일), 208쪽.

10)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선인, 2005), 191쪽.

11) 홍기주는 감리교 목사로 1946년 1월 5일 평남인민정치위원회에서 조만식이 의장직을 사퇴하자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인물이다. 그는 1946년 2월 5일에 조선민주당 지도부가 부당수 최용건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때 잔류한 창당 중앙위원 4명 중 한 명이었다. 김선호, 「해방 직후 조선민주당의 창당과 변화」, 『역사와현실』 61호(2006), 292쪽, 295-296쪽.

을 행사"했다.[12] 북한지역에서 정권기관에 대한 선거는 1947년 2월 24-25일에 리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고, 3월 5일에 면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완료되었다.[13]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리단위부터 도단위까지 인민위원회 위원들이 선거로 선출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의 계급구성을 보면, 전체 위원 70,235명 중에서 노동자는 4,140명(5.9%), 농민은 55,305명(78.7%), 사무원은 8,645명(12.3%), 상인은 866명(1.2%), 기업인은 256명(0.4%), 구(舊)지주는 32명이었다.[14] 인민정권의 위원 중 노동자·농민은 84.6%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무원은 1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민위원 중에는 노동자보다 사무원이 더 많았는데, 그 이유는 북한정치세력이 해방 직후부터 인텔리를 친일파범주에서 제외해 등용하였고, 혁명과정에서 이들이 민주세력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김일성은 1946년 8월 28일에 개최된 노동당 창립대회에서 "대부분 절대다수의 지식분자들은 과거에는 일제와 자산계급들에게 복무"했지만, 해방 이후 1년 동안 지식분자들이 "민주주의건설사업에 많은 공적"을 쌓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하야 복무하는 지식분자로 변"했다고 설명하였다.[15] 또한, 그는 "지식인들"이 "조국부흥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우리 조국과 인민을 애호"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16] 인민위원 중 노동자·농민·사무원은 9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데 비해, 부르주아계급과 지주계급은 거의 없었다. 특히 지주계급은 거의 소멸된 수준이었다.

부르주아계급과 지주계급은 인민민주주의혁명 초기부터 통일전선의 대상이 아니었다. 1945년 11월 당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통일전선을 "현단계의 조선민족의 공통되는 이익을 전취(戰取)하기 위하야 전민내외각정파·각계급층(全民內外各黨派·各階級層)을 한 덩이로 뭉치는 투

12) 『北朝鮮法令集』(北朝鮮人民委員會 司法局, 1947), 1-3쪽.
13) 『사료집』 5권, 85-86쪽.
14) 전현수 역, 『북조선주재 소련민정청 3개년사업 총결보고』 1권(정치편)(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27-30쪽.
15) 金日成, 「北朝鮮勞動黨創立大會總結에 關한 報告」, 『근로자』 창간호(1946년 10월호), 『사료집』 42권, 57쪽.
16) 金日成, 「朝鮮人民에게 告함」, 『人民』 創刊號(1946년 11월 28일), 『사료집』 13권, 12쪽.

쟁진(鬪爭陳)"이라고 정의하였다.[17] 즉 통일전선은 각 정당 · 계급 · 계층이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연합하는 것이자 적대적인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전술이었다. 그러나 부르주아계급과 지주계급은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의 과정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에 지식인들은 혁명의 과정에서 포섭되어 혁명의 주체로 다시 태어났다. 그 결과 1947년 2월 22일에 성립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반혁명세력이 배제되고 노동자 · 농민 · 사무원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정권기관 내에 군사담당부서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2월 20일에 북조선인민회의가 창립될 때, 인민회의에 군사지휘관의 임면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북조선인민회의에 관한 규정」 초안에서 상임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로 "북조선의 군사최고지휘관을 임면 또는 경질한다"고 규정하였다.[18] 그러나 정식으로 채택된 『북조선인민회의에 관한 규정』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19] 당시 상임위원회 의장은 김두봉(노동당), 부의장은 최용건(민주당)과 김달현(金達鉉, 청우당)이었다.[20]

북조선인민회의는 정권기관에 군사담당부서가 없어지자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군사최고지휘관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려 하였다.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사령관인 최용건이 상임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된 것은 그가 민주당원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상임위원회를 통해 군대를 관리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민회의는 다양한 계급 · 계층을 대표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노동당의 주도권을 보장할 수 없었다. 또한 군사최고지휘관에 대한 규정이 채택될 경우, 군대창설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우려도 있었다. 그 결과 임면권 부여방안은 입안단계에서 폐기되었고, 이로써 군대의 독자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창립되자 군대창설과정도 변

---

17) 「民族的 統一戰線과 그 政治思想의 動向」, 『正路』(1945년 11월 7일).

18) 「北朝鮮 道 · 市 · 郡人民委員會大會 會議錄」(1947년 2월 17일), 『사료집』 8권, 141-142쪽.

19) 「북조선인민회의에 관한 규정: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 제176호」, 『사료집』 5권, 144-145쪽.

20)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北朝鮮人民會議 第一次 會議 會議錄』(勞動新聞社, 1947), 37쪽.

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지역의 군대창설은 1946년 8월 15일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설립 이후 3단계 결정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군대창설방안에 대한 북한 측의 구상과 요청, 제25군사령부 · 연해주군관구의 조정과 보고, 모스크바지도부의 검토와 결정이다. 북한지역의 군대창설은 북한정치세력, 현지 · 연해주의 소련군지휘부, 모스크바지도부라는 3개 주체를 통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창립되자, 3단계 결정과정을 통해 확정된 군대창설방안은 북한측 입법기관의 승인과 정권기관의 법령 공포를 통해 실현되었다. 기존에는 입법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창설방안은 모스크바지도부의 허가 이후 북한 정권기관의 법령 공포를 통해 실현되었다. 그러나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가 설립되고 "최고집행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북한지역에는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공식적 입법체계가 수립되었다. 법률의 제정과 공포는 일반적으로 북조선인민회의가 행사하였고, 인민회의 휴회기간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행사하였다.[21] 따라서 입법체계의 수립 이후 군대창설과정은 모스크바지도부의 결정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측의 공식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집행되었다. 그 결과, 군대창설의 결정과정에서 북한정치세력의 독자적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Ⅲ.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정책

북조선로동당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창설을 전후해 북한 · 중국 · 소련 사이에 군사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군대를 정규군의 형태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군대를 보다 확고히 장악하고, 북한지역에 새로운 국가기관을 수립하기 위한 시도였다. 3개 국가 사이의 군사협력체계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시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 정보참모부는 조선의용군 리홍광지대와 대대부가 1946년 7월부터 1947년 1월까지 군 고위급 비밀연락체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22] 보안간부훈련소의 발전이 정점을 찍은 시기는 1947년 3-4월이었는

2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32-36쪽.

데, 주한미군은 보안간부훈련소의 발전에 만주의 중국공산당, 조선의용군 · 조선독립동맹 출신의 조선인들, 소련군사령부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상호협력 결과, 조선의용군의 노전사들이 1946년 12월과 1947년 1월에 만주에서 입북했고, 조선의용군의 대규모 입북 계획이 논의되었다.[23]

주한미군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3국 간에 군사협력관계가 발전하던 1947년 1월 하순, 평양에서 북한의 군사지도자들과 중국공산당의 장교들,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의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이 회의에서 북한 · 중국 · 소련이 3개 군사사령부의 활동을 협의할 연합군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1947년 2월경 3국의 연합군사조직으로 "군사합작위원회"가 설립되었다고 분석하였다.[24] 이 위원회는 북한에 있는 소련군사령부 대표들과 소련군사령부의 정치부(Politodyel), 중국공산당과 중국 군사지휘관들, 북조선로동당과 북한 군사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25] 위원회는 1947년 2월 하순에 운영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는 3-4월에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병력의 이전과 군수물자의 이동 등이었다.[26]

군사합작위원회의 설립은 중국내전의 전황(戰況)과 관련 있다. 만주에서는 1946년 6월 초부터 국민당군대가 동북민주연군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27] 국민당군대는 10월과 11월에 각각 조 · 만국경도시인

---

22) G-2,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2(1948년 3월 19-26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이하 한림대),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이하 북한정보요약)』 2(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224쪽.

23) G-2, USAFIK, *ISNK*, No.39(1947년 6월 15-30일), 한림대, 『북한정보요약』 2, 221쪽.

24) 군사합작위원회의 존재는 *ISNK*, No.37(1947년 5월 15-31일), *ISNK*, No.38(1947년 6월 1-15일), *ISNK*, No.39(1947년 6월 15-30일)에 세 차례 보고되었다. 정보의 출처는 각각 다르다. 주한미군 정보참모부는 *ISNK*, No.39(1947년 6월 15-30일)에서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원회의 존재는 정보원 PUKTo에 의해 확인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위원회의 명칭은 "Koon Sah Hap Tchak Ui Won Hae"라고 기록되어 있다. 군사합작위원회의 존재를 언급한 또 다른 자료는 미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가 1952년 7월 31일에 작성한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이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정보출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 군사합작위원회의 존재는 미군기록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자료가 확인될 때까지 군사합작위원회의 존재를 인정하기로 한다.

25) G-2, USAFIK, *ISNK*, No.39(1947년 6월 15-30일), 한림대, 『북한정보요약』 2, 221쪽.

26) G-2, HQ, FECOM,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HQ, FECOM, 1952. 7. 31.), p. 17.

27) 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館 編, 『延邊大事記』(延邊大學出版社, 1990), 123쪽.

안동(安東)과 통화(通化)를 점령했고, 1947년부터는 임강(臨江)에 총공세를 퍼붓고 있었다.[28] 1947년 1월 당시 중국공산당은 만주에서 전략적으로 후퇴하고 있었으며, 주한미군 자료에 기록된 위원회의 임무는 병력과 군수물자의 이동이었다. 따라서 군사합작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만주의 중국공산당군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1946년 7월부터 1947년 1월까지 만주의 중국공산당, 북한의 소련군사령부, 북조선로동당 사이에 군사협력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1946년 봄부터 1947년 1월까지 만주에서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 출신·조선의용군 출신 간부와 조선인 병력들이 대거 입북했다.[29] 이들의 입북은 중국공산당의 동의와 소련군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1947년 전후에 북·중·소 간의 군사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만주의 조선인 간부와 병력이 입북하면서 북한의 군대가 확편될 수 있는 군사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간부와 병력의 확충을 토대로, 북한지역에서는 1947년 5월 17일에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北朝鮮人民集團軍總司令部, 이하 집단군총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집단군총사령부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후신이다.[30] 집단군총사령부는 구 일본군 제79연대[31]가 주둔했던 평양 해방산에 설치되었다. 같은 날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예하의 부대명칭도 변경되었다. 보안간부훈련 제1소(개천)는 "인민집단군 제1경보병사단"으로, 보안간부훈련 제2소(나남)는 "인민집단군 제2경보병사단"으로, 보안간부훈련 제3소(원산)는 "인민집단군 제3독립혼성여단"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부대를 확장하였다. 제3독립혼성여단이라고 명명한 것은 완전한 사단규모였으나 증강된 장비의 보충 없이 장비를 혼합편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대부 예하 경위대는 "경위연대"로, 대대부 직속 위생소대는 직속 "중앙병원"으로 개칭·확장하였다.[32] 집단군총사령부가 부대를

---

28) 최해암, 『조선의용군 제1지대사』(료녕민족출판사, 1992), 68-69쪽.

29) 김선호, 「해방 이후 북·중군사협력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 『軍史』 102(2017), 126-129쪽.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67), 앞의 책, 91쪽.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한국전쟁사1: 해방과 건군』에는 "97연대 자리"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집단군총사령부에서 근무한 최태환과 군사사학자 사사키는 평양의 해방산에 있는 일본군 제79연대 자리라고 서술하였다. 국방부의 간행물이 誤記된 것이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67), 앞의 책, 682쪽; 최태환·박혜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공동체, 1989), 46쪽;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韓國戰秘史』 中卷(兵學社, 1977), 30쪽.

확편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합작위원회를 토대로 북·중·소 간의 군사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단군총사령부 출범 당시 인민집단군은 3개 보병부대로 편성되었다. 제1사단은 개천, 제2사단은 나남, 제3여단은 원산에 있었다. 각 사단은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단본부에는 통신, 공병, 군의 등과 같은 다양한 전문병과·기술병과 부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각 사령부의 참모조직은 부대의 정치분야를 책임지는 부지휘관(문화부대장)을 가진 소련군 모델이었다.[33] 제3여단의 정확한 부대명칭은 '보병독립여단'으로, 보병독립여단의 병력은 대부분 철도경비대의 전대원이었다.[34]

북한정치세력은 집단군총사령부가 창설된 직후에 보병부대를 완편하고 탱크부대를 신설하려는 창군구상을 추진했다. 김일성은 1947년 7월 22일 제25군사령부에 35-40대의 탱크와 5-20대의 자주포를 보유한 탱크연대(700명 정원)의 조직과 1개 보병사단(1만명 정원)의 편성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시에 김일성은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무기, 피복, 군화, 장비 등을 배정해 줄 것을 소련군 측에 요청하였다.[35] 김일성은 보병독립여단을 증편해 정규 보병사단으로 편성하고 탱크연대를 신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지도부는 김일성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보병독립여단은 1948년 9월 9일에 가서야 제3보병사단으로 승격되었고, 탱크연대는 1948년 12월에 처음 창설되었다.[36] 김일성은 소련 측보다 앞서서 정규 보병사단과 탱크부대를 창설하고자 하였고, 소련 측은 이 부대의 창설시점을 조절하였다. 소련군이 창군시점을 조절한 것은 당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군관양성기관 중 평양학원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는 대대부에 이어 집단군총사령부 예하에 배속되었다. 1947년 5월 17일에 집단군총사

---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67), 앞의 책, 682쪽; 佐佐木春隆(1977), 앞의 책, 30-31쪽. 사사키는 같은 날 "평양학원 항공중대와 신의주항공대"가 "비행연대"로 개편되었다고 서술했으나, 비행연대는 1949년도에 창설되었다.

33) G-2, USAFIK, *ISNK*, No.36(1947년 5월 1-15일), 한림대, 『북한정보요약』 2, 46-47쪽.

34) G-2, USAFIK, *ISNK*, No.45(1947년 9월 15-30일), 한림대, 『북한정보요약』 2, 422쪽.

35) 「김일성이 코로트코프에게」(1947년 7월 22일), ЦАМО, ф. 379, оп. 166654, д. 1, л. 72, 기광서, 「북한 무력 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硏究』 28권 3호(2004), 226쪽에서 재인용.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67), 앞의 책, 688-689쪽, 692쪽.

령부가 창설되자 항공부대도 새롭게 재편되었다. 8월 20일에 평양학원 비행중대 출신들과 북조선인민항공협회 성원들을 기간으로 조선항공대가 조직되었다.[37] 조선항공대는 평양학원에서 독립하여 집단군총사령부 예하의 정식 항공부대로 승격되었다.[38]

집단군총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도 경비부대는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에 소속되어 있었다. 1947년 10월 당시 내무국은 독립보안여단, 수상보안대대, 철도보안대대, 제79기마대대, 수상보안간부학교를 관할하고 있었다. 내무국에서는 대대로 편성된 수상보안대대 · 철도보안대대 · 제79기마대대를 묶어 "독립대대"라고 불렀다.[39] 조만국경경비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에 소속된 이래 계속해서 내무국에 소속되었다.

북조선로동당은 정규군의 최고지휘부로 집단군총사령부를 창설하고, 예하 부대와 기관을 통해 문화군관 · 통역군관 · 비행군관 · 병종군관과, 보병부대 · 항공부대를 양성하였다. 이와 달리 내무국에는 38경비보안대대 · 국경경비대대 · 수상보안대대를 배속해 상시적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남북 국경지대와 해안지역의 경비를 전담시켰다. 이 같은 인민군 창설 방향에 따라 향후 해군의 모체가 되는 수상보안대대는 인민군 창설과정에서 분리되어 해안경비부대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집단군총사령부 예하 부대와 기관은 경비업무에서 해제되어 본격적으로 인민군 창설에 주력하게 되었다.

집단군총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인민군 창설과정은 제2단계로 들어섰다. 창군과정의 제1단계는 1946년 8월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북조선로동당은 이 시점에 군대를 보안기구에서 독립시켰고, 군사지휘기관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보병부대와 군사간부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집단군총사령부는 북한지역에서 보안기구라는 위장막을 벗고 군대를 자임한 첫 번째 기구였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지역에 통일국가의 군대의 모체를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

37) 기광서(2004), 앞의 논문, 225쪽. 기광서는 '항공건설후원회'라고 쓰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북조선인민항공협회'이다. 부대의 정식명칭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였다. 김일성, 「새 조선의 항공대를 결성하자」(1945년 11월 29일), 『김일성전집』 2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370쪽.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89-290쪽.

39)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장 박일우, 「제복 및 견장 등급규정에 관한 지시」(1947년 10월 9일), 『사료집』 9권, 90쪽.

집단군사령부의 총사령관은 대대부 사령관인 최용건이 임명되었다. 집단군총사령부의 참모진도 대대부의 참모진이 그대로 유임되었다. 총참모장 안길(安吉), 부사령관 겸 문화부사령관 김일(金一), 포병부사령관 무정(武亭), 후방부사령관 최홍극(崔弘極), 작전부장 류신(柳新), 간부부장 리림(李林), 통신부장 박영순(朴英順), 통신부 부부장 리청송(李青松), 공병부장 황호림(黃虎林), 공병부 부부장 박길남(朴吉南), 정찰부장 최원(崔遠), 대열부장 문종목(文宗穆), 검찰소장 김학인(金學仁), 정치보위부장 박응익(朴應翼) 등이 임명되었다. 후방부 후방과장은 노정섭(盧正燮)이었다.[40]

이후 집단군총사령부 참모진은 일부 변경되었다. 1947년 12월 13일에[41] 안길이 병사(病死)하자 포병부사령관 무정이 총참모장 임시대리로 임명되었다.[42] 그 후 제2보병사단장 강건(姜健)이 중장으로 승진하여 후임 총참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와 동시에 집단군총사령부 통신부 부부장이던 리청송이 소장으로 승진하여 제2사단장으로 발령받았다. 공병부장 황호림은 집단군총사령부 부총참모장으로 승진하였고, 공병부 부부장 박길남은 공병부장으로 임명되었다. 후임 공병부 부부장에는 김선옥(金善玉) 중좌가 새로 부임하였다.[43] 집단군총사령부 체육부장은 천이완이 맡았다. 그는 대대부시절인 1947년 3월 7일부터 체육부장을 맡아왔다.[44] 집단군총사령부 구락부 부장은 정률성(鄭律成)이 맡았다. 그는 집단군총사령부 출범 직전에 대대부에 배치되었다. 정률성은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1946년 1월에 북조선분국 황해도당위원회 선전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1947년 3월 10일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 구락부장" 겸 "협주단 단장"에 임명되었고, 집단군총사령부에서도 구락부장 겸 협주단 단장을 맡았다.[45]

---

40) 장준익(1991), 앞의 책, 53-54쪽;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고려원, 1990), 73쪽; 최태환 · 박혜강(1989), 앞의 책, 45-46쪽. 최태환은 초기 지도부에서 부참모장이 황호림이었다고 증언했으나, 장준익과 주영복은 모두 황호림이 공병부장이었다고 서술하였다.

41) 당시 기록에 안길의 직책이 "보안간부훈련대대본부 참모장 ·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으로 서술되어 있다. 「해방 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사료집』 7권, 716쪽.

42) 최태환은 안길이 병사한 후 바로 강건이 임명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주영복에 따르면, 그 사이 무정이 "총참모장 임시대리"로 임명되었다. 한상구, 「팔로군 출신 방호산 사단 정치보위부 최태환의 증언」, 『역사비평』 1988년 가을호(1988), 374쪽; 주영복(1990), 앞의 책, 110-111쪽.

43) 장준익(1991), 앞의 책, 61-62쪽.

44)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경인문화사, 2006), 672쪽.

45) 한창희 · 리정문 · 리두만, 「인민의 음악가 정률성」,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

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들은 대부분 보안간부훈련대대부에서 같은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집단군총사령부가 출범하면서 군사지휘부에 새로 들어온 간부는 공병부 부부장 김선옥, 체육부장 천이완, 구락부장 정률성이다. 김선옥은 해방 직후에 적위대 대장으로 활동했고 평양학원 1기생이다. 졸업 후에는 경비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했다.[46] 천이완은 고려인으로 1946년 5월 3일부터 인민군 포병부문 소련군사고문의 통역원으로 활동했다. 1947년 3월 7일부터 대대부·집단군총사령부에서 체육부장을 맡았다.[47] 이상에서 확인한 집단군총사령부의 조직과 간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8]

표-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조직과 간부

부서	직책	1대	2대	대대부 직책과 관계
총사령부	총사령관	최용건(항)	최용건(항)	연임
총참모부	총참모장	안 길(항)	강 건(항)	교체(안길 사망)
	부총참모장	모름	황호림(고)	승진
문화부	문화부사령관	김 일(항)	김 일(항)	연임
	체육부장	천이완(고)	천이완(고)	신규
	구락부장	정률성(의)	정률성(의)	연임(협주단장 겸임)
포병부	포병부사령관	무 정(의)	무 정(의)	연임
후방부	후방부사령관	최홍극(고)	최홍극(고)	연임
	후방부 후방과장	노정섭(의)	노정섭(의)	신규
간부부	간부부장	리 림(의)	리 림(의)	연임
작전부	작전부장	류 신(의)	류 신(의)	연임
통신부	통신부장	박영순(항)	박영순(항)	승진
	통신부 부부장	리청송(고)	모름	연임
공병부	공병부장	황호림(고)	박길남(고)	연임 / 승진
	공병부 부부장	박길남(고)	김선옥(평)	연임 / 신규
정찰부	정찰부장	최 원(고)	최 원(고)	연임
대열부	대열부장	문종목(국)	문종목(국)	연임
정치보위부	정치보위부장	박응익(국)	박응익(국)	연임
최고검찰소	검찰소장	김학인(고)	김학인(고)	연임

회 편, 『결전』(민족출판사, 1991), 459쪽; 정설송 엮음,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 정률성①: 그의 삶』(형상사, 1992), 10쪽, 225-227쪽. 정설송은 정률성의 아내다.

46) G-2,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년 4월 30일-5월 7일), 한림대, 『북한정보요약』 3, 348쪽.

47) 장학봉 외(2006), 앞의 책, 672쪽.

48) 괄호 안은 인물들이 속한 정치세력을 표시한 것이다. (항)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의)는 조선의용군 출신, (고)는 고려인, (국)은 국내공산주의세력, (평)은 평양학원 졸업생을 뜻한다.

집단군총사령부 간부구성의 첫 번째 특징은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가 대부분 그대로 유임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창군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상급간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부정책이었다. 항일연군 출신은 총사령관, 총참모장, 문화부사령관, 통신부장을 맡았다. 의용군 출신은 포병부사령관, 작전부장, 간부부장, 구락부장을 맡았다. 고려인은 후방부사령관, 정찰부장, 검찰소장, 공병부장, 공병부 부부장, 통신부 부부장을 맡았다. 국내공산주의자는 대열부장과 정치보위부장을 맡았다. 군대의 각 정치세력은 부문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항일연군 출신은 군대에 대한 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 의용군 출신은 군대의 포병·작전·문화부문과 인사권, 고려인은 기술병종, 국내공산주의자는 총무부문과 방첩부문을 담당하였다. 이중에서 항일연군 출신은 총참모장인 안길이 사망하자 2대 총참모장으로 항일연군 출신 강건을 취임시킴으로써 군대의 참모부문을 확고히 장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집단군총사령부에 조직된 각 부서의 구성도 대대부와 거의 흡사했다. 북한의 창군세력은 대대부의 편제와 인력을 그대로 옮겨와 집단군총사령부를 조직한 것이다.

각 정치세력은 집단군총사령부 내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총참모장 임시대리로 임명되었던 무정은 조선의용군 총사령관 출신으로 군대에 있는 의용군 출신들의 지도자였다.[49] 만약 그가 정식으로 총참모장에 임명된다면 군대 내의 정치세력관계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았다. 대대부 공병부에서 활동한 주영복은 무정이 임시대리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 "김일성과의 상의도 없이 독자적인 지휘방침을 세우기도 하고, 독단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해서 김일성의 비위를 거슬렸"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50] 즉, 무정이 임시대리에서 물러난 이유는 군대의 지휘권을 둘러싸고 김일성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

49) 특히 무정은 태항산에서 활동한 조선의용군 대원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았다. 엄영식은 해방 직전 태항산으로 이동한 인물인데, 그가 보기에 태항산의 조선의용군 대원들이 무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존경심은 하나의 종교적 신앙심 같았다고 한다. 그들은 무정을 "위대한 지도자 무정동무"라고 불렀고, 군정학교의 학생들은 매일 「무정동무」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의 가사는 "무정동무의 가르치는 길은 조국해방독립의 길"이라는 내용이었다. 태항산의 조선의용군 대원들은 무정이 반드시 해방 후에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엄영식, 『탈출: 죽어서야 찾은 자유』(야스미디어, 2005), 111쪽, 161쪽, 165쪽. 무정이 해방 후에도 조선의용군 출신의 지도자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다음을 참조 바람. 최태환·박혜강(1989), 앞의 책, 67쪽.

50) 주영복(1990), 앞의 책, 110쪽.

이것은 군대의 지휘권과 군대 내부의 세력권을 둘러싼 충돌이었다. 당시 군대의 지휘권은 총사령관인 항일연군 출신 최용건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무정의 독단적 지휘권 행사는 지휘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결국 무정이 임시대리에서 물러난 것을 보면, 대대부에서 항일연군 출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총사령부 내부에서 근무한 인물의 증언을 들어보면, 각 세력 간의 권력투쟁은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1947년 6월에 입북한 동북군정대학 졸업생 최태환은 "권력핵심부에서는 권력투쟁의 양상이 있었으리라 짐작되지만, 중견간부급이었던 나의 동료들 중에서는 파벌의식이나 계파적인 관념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그는 각 정치세력 중에서 '연안출신은 선비형이 많았고, 소련계는 관료형, 갑산계(항일연군 출신)는 전투적인 투사형'이었다고 회고하였다.[51] 각 정치세력은 군대 내부에서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정규군을 창설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저해할 만큼 갈등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간부구성의 두 번째 특징은 향후 인민군 창설 이후에 나타나는 간부충원 방식이 집단군총사령부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집단군사령부는 신설된 부서나 공석이 된 부서의 간부를 두 가지 방식으로 충원했다. 첫째, 창군요원과 해방 후에 육성된 군사간부를 승진시켜 부서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먼저, 총참모장 안길이 사망하자 포병부사령관 무정이 임시대리로 임명되었고, 이후 제2사단장 강건이 내부에서 승진해 총참모장에 임명되었다. 다음으로 2대 공병부 부부장은 평양학원 졸업생으로 경비대에서 지휘관으로 성장한 김선옥이 임명되었다. 또한 공병부장이 공석이 되자 공병부 부부장 박길남이 내부에서 승진해 공병부장에 임명되었다.

둘째, 당간부와 소련군사령부에 소속된 고려인을 영입하는 방식이다. 집단군총사령부는 구락부가 신설되자 황해도당 선전부장 정률성을 영입해 구락부장에 임명하였다. 또한 대대부 말기에 체육부가 신설되자 포병부문 소련군사고문의 통역원 천이완을 영입해 체육부장에 임명하였다. 두 사람 모두 배치된 부서와 관련된 경력이 있었다. 정률성은 노신(魯迅) 예술학원을 졸업하고 연안(延安)에서 음악지도원과 작곡가로 활동한

51) 최태환 · 박혜강(1989), 앞의 책, 36쪽.

경력이 있었고,[52] 천이완은 연해주 한인사범학교에서 배구선수이자 체육단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53] 이 시기까지 외부에서 영입된 간부들은 해당부문과 관련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집단군총사령부 시기에는 만주에서 조선인들의 입북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1946년 6월부터 만주에서 중국내전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만주의 조선인들은 중공 길동분성위(吉東分省委)의 지시에 따라 모두 중국내전에 동원되었다.[54]

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구성은 북조선로동당이 국가건설과정에서 추진한 간부정책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노동당은 군대의 신규간부를 내부승진이나 외부영입을 통해 충원하였다. 내부승진은 기존에 군사지휘기관 간부였거나 해방 이후 군사부문에서 성장한 인물들이었다. 외부인사는 노동당 간부나 소련군사령부에 소속된 고려인이었다. 따라서 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원천은 창군요원, 당간부, 소련군사령부 소속 고려인, 군사학교 졸업생이었다. 이 시기에는 외부영입보다 내부승진이 보편적이었고, 아직까지 정권기관 간부는 영입되지 않았다. 새로 충원된 인물들의 공통점은 평양학원 졸업생, 노동당 간부, 소련군사고문 통역원 등 모두 소련군사령부와 북한정치세력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북조선로동당은 집단군총사령부에 친소·친노동당적 인물을 집중적으로 충원하였다.

Ⅳ. 당·정·군의 반혁명세력 배제

그런데 집단군총사령부가 출범하기 이전, 인민군에는 이들과 다른 경력·출신의 간부들도 많았다. 대표적인 집단은 친일파, 지주계급, 민주당·청우당 출신 간부들이었다. 집단군총사령부는 출범하기 직전에 이들을 '불순분자' 등 반혁명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하

52) 정설송 엮음(1992), 앞의 책, 10쪽; 105쪽.

53) 장학봉 외(2006), 앞의 책, 672쪽.

54) 중국내전 중 동북전쟁의 전세는 1947년 6월부터 전환되었는데, 중공 동북국은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기 위해, 6월 초부터 다시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해 전선을 원호하라고 지시하였다. 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館 編(1990), 앞의 책, 123쪽; 김동화 외, 『연변당사 사건과 인물』(연변인민출판사, 1988), 280-281쪽, 324쪽.

였다. 인민군의 제1차 군관숙청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조선의용군 출신은 해방 전에 중국공산당의 당내검열운동인 정풍(整風)운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조선의용군 출신들은 해방 후에 중국공산당의 정풍운동을 그대로 들여와 북한지역에서 정풍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으로, 1946년 12월부터 1947년 2월 사이에 북조선로동당 평북도당이 운영하는 도당학교에서 정풍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평북도당 위원장 겸 도당학교 교장은 조선의용군 출신 윤공흠이었고, 학교의 교무주임과 선생들도 모두 의용군 출신이었다. 도당학교 간부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자유주의 경향과 부르주아 잔재가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중국에서 사용하던 쩡풍운동"을 학교에서 전개하였다. 도당학교는 14명의 위원을 선발해 정풍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풍심사위원들은 노동계급 출신을 임명했다. 이들은 해방 전의 경력이 의심스럽거나 자유주의 경향과 부르주아 잔재가 농후한 학생들을 지명해 정풍대에 세우고 자아비판과 군중재판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친일혐의가 있거나 자유주의·부르주아 경향을 청산하지 못한 학생은 출당조치와 함께 퇴학당했다. 예를 들어 도당학교 5반의 교원출신 학생은 정풍운동 결과 해방 전에 헌병보조원이었던 사실이 발각되어 출당되고 퇴학당했다.[55]

평북도당학교 간부들은 중국공산당에서 전개했던 정풍운동을 그대로 들여와 학교에서 실행했다. 정풍 대상은 친일혐의자, 자유주의 경향과 부르주아 잔재가 농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친일혐의가 발각되거나 자유주의 경향과 부르주아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학생들은 퇴학당하고 당적도 박탈되었다. 평북도당학교가 전개한 정풍운동은 내부에 숨어있는 '불순분자'를 적발하고 내부의 규율과 당적 영향력을 확고히 수립함으로써 조직을 정예화하기 위한 사상투쟁이었다. 통일전선의 측면에서는 내부적 단결을 저해하는 세력을 배제함으로써 전선의 내부적 동질성과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풍운동은 1947년에 들어서 당기관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전개되었다. 1947년 3월부터 4월까지 제2보병사단은 전체 군관을 조사해 "불순분

55) 김석형, 『김석형구술자료집: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오!』(선인, 2001), 189-191쪽. 구술자인 김석형도 겨울날 세면시간에 "날이 추우니까, 빨리 빨리 하고 들어가자"는 발언 때문에 부르주아 잔재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정풍대에 올랐다. 그는 3일 동안 하루에 두 번씩 정풍대에 올라 심사를 받았고 자아비판 후에 통과되었다.

자"를 숙청했다. 제2사단 제4과(인사과) 과장(중좌)은 항일운동 경력이 인정되어 과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일본당국에 전향한 사실이 밝혀져 파면되었다. 통신대대 나운혁(羅雲赫) 소좌는 연변에서 일본 관헌에 협력한 사실이 폭로되어 추방되었다. 통신대대 참모장 김영주 대위는 지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예편되었다. 공병대대 문화부대대장 강민식(康敏植)은 능력부족으로 좌천되었다. 공병대대 후방부대대장은 당시 19살이었다. 그는 경험부족으로 중위로 강등되어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 공병대대 의무관 서 중위는 부르주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공병대대 소대장 6명 중 2명은 자산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단에서 추방되었다. 추방된 소대장은 분대장으로 강등되어 군관학교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숙청결과 제2사단 예하에서 100명 이상의 군관이 숙청되었다. 특히 민주당 · 청우당 출신 군관은 거의 대부분 숙청되었다.[56] 1946년 12월 23일 당시 제2사단의 군관인원은 748명이었다.[57] 3개월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전제하면, 사단 군관 중 약 13.4%를 숙청한 것이다.

제1차 군관 숙청 당시, 해방 이후에 월북했던 여운형(呂運亨)그룹도 숙청되었다. 조선건국동맹의 박승환(朴承煥)과 신경군관학교 1 · 2기생인 만주군 출신 장교 10명은 1946년 8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인민군 창설작업에 투입되었다. 그 후 창설작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자 사회단체와 학교의 간부로 배치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1947년 4월 초에 보안대원에게 체포되어 평양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여운형그룹의 구속이유는 "사회가입(社會假入)"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예비검속으로, 먼저 투옥한 이후 죄의 유무를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평양형무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유죄여부를 조사받았다.[58] 여운형그룹 뿐만 아니라, 일본군 출신 군관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1947년도에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숙청작업은 1947년 말에 완료되었다.[59]

---

56) 주영복(1990), 앞의 책, 104-106쪽.

57) 「1946년 12월 22-23일 25군 사령관 및 그 참모부가 실시한 경보병사단 검열결과 총결자료」, 러시아연방 국방성문서보관소 소장 자료, 문서번호 불명,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 1(선인, 2003), 580쪽에서 재인용.

5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방원철」, 『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정부』(선인, 2004), 285쪽, 301-305쪽, 330쪽.

59) G-2, USAFIK, *G-2 Weekly Summary,* No.147(1948년 7월 2-9일), 한림대, 『북한정보요약』 3, 542쪽.

북한의 창군세력은 정식 군사지휘기관 창설에 앞서 군대 내의 "불순분자" 간부를 추방한 것이다. 그러나 1947년의 숙청작업은 1946년 보안국에서 진행된 숙청작업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다. 당시 보안국은 1년 동안 전체 보안원 17,348명 가운데 4,254명(24.5%)을 숙청했다.[60] 1946년 인민군 창설 초기에 보안기구 내에서 대대적으로 친일파와 '불순분자'를 숙청했기 때문에 집단군총사령부 시기에 숙청대상이 적었던 것이다. 창군세력은 보안국의 검열사업 이후에도 일본군 출신 · 만주군 출신 · 지주계급 · 부르주아계급 · 민주당원 · 청우당원 등 이질적인 인물들을 존속시켜 창군사업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창군사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자 군대에서 이질적인 요소를 점차 배제하였다. 제2사단의 경우 전체 군관 중 13.4%를 제거했다. 보안국 시기에 이미 대규모 숙청작업이 있었고 숙청시점이 군사지휘기관을 확장하던 창군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숙청규모는 오히려 놀라울 만큼 컸다.

창군과정에서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군관들을 숙청함으로써 군대를 개편하는 작업은 북한뿐만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진행되었다.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국가는 독일로부터 해방된 이후 "반동적인 장관들과 군관들에 의하여 령도되고 있던 낡은 군대 대신에 새롭고 완전하게 인민적인 군대를 창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국가들은 "반동적인 장관들과 군관들"을 군대에서 축출하였다.[61]

북한과 동유럽은 차이점도 있었는데, 동유럽에서는 해방 전에 정부군이나 인민군 · 빨치산부대가 창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 정부군을 개혁하거나 인민군 · 빨치산부대를 기반으로 인민군대를 창설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해방 직후에 기존 빨치산부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빨치산부대의 일부가 인민군으로 개조되었다. 신규 군대에서는 반역자, 대적협력자, 반민주적 · 반인민적 분자들이 추방되었고, 민주적 · 반파쇼적 장교들이 양성되었다. 불가리아에는 1944년 9월 9일 인민정권 수립 당시 45만 명의 왕정군대가 존재했다. 불가리아 공산주의자들은 군대 내에 조국전선병사위원회를 신설해 군대에서 파시스트를 추방하고 지휘관을 새로 선출했다. 지휘관에는 빨치

60) 북조선인민보안국, 『北朝鮮保安事業總結報告』(북조선인민보안국, 1946년 11월 19일), NARA, RG 242, SA 2010, Box 미상, Item 15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61) 느 · 파르베로브,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사회적 및 국가적 구조」, 『근로자』 제12호(로동신문사, 1949년 6월 30일), 86쪽.

산 · 정치범이 등용되었다. 해방 전에 조직된 빨치산부대는 인민군에 편입되었다.[62]

그러나 북한은 군대를 창설할 만한 규모의 정부군이나 빨치산부대가 없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창군세력은 일제의 군대 · 경찰에 근무했던 인물들을 창군과정에 참여시킨 뒤, 군대창설이 일정 궤도에 오르자 이들을 축출한 것이다. 군관숙청이 실시된 시점은 1947년 3-4월로 제2차 미 · 소공동위원회를 앞둔 시점이었다. 북조선로동당은 미 · 소 합의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앞두고 반혁명세력을 배제하였고, 노동당의 지도적 위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군에 있던 이질적 인물들은 군대에서 축출되었고, 인민군에서 노동당원들의 지위와 역할은 한층 강화되었다. 북조선로동당은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당간부, 군사학교 졸업생, 소련군사고문 통역관 등을 새로운 군사간부로 등용함과 동시에 친일파와 '불순분자'로 판명된 군사간부를 배제함으로써 간부구성을 인위적으로 개조해 나갔다.

한편 북조선로동당은 1946년 12월부터 1947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 '유일당증 수여사업'을 통해 내부적으로 이질적인 세력을 제거하였다. 노동당은 급속히 확대된 당대열 내에 이색분자와 부적격자가 잠입했다고 판단하고 7개 부류의 당원을 숙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숙청대상은 착취계급(자본가 · 기업가 · 상인 등), 친일파(대화숙 · 녹기연맹 등), 토지개혁 시 숙청 지주, 종교인, 종파주의자, 탐위분자, 법령위반자, 불량분자들이었다.[63] 숙청대상에 오른 세력은 통일전선의 대상이 아니라, 이른바 '민주개혁'의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계급적 입장에 입각해 이에 저항한 반혁명세력이었다.

결국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에 토지개혁 · 산업국유화 등 사회개혁과 제1차 미 · 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반대하거나 저해하는 세력을 반혁명세력으로 규정해 배제하였다. 이들은 반혁명세력인 부르주아계급 · 지주계급을 배제하고 혁명세력인 노동자 · 농민 · 사무원을 끌어들임으로써 인위적으로 계급을 재편하였다. 이들이 인위적으로 계급구조를 재편한 것은 제1차 미 · 소공위의 결렬 이후 한반도에서

62) 柴田政義, 『東歐政治經濟史』(인간사랑, 1990), 215쪽, 292쪽.

63)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유일당증수여에 관하야: 북조선로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 결정」(1946년 11월 6일), 『사료집』 1권, 178-180쪽.

통일국가 건설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정치세력은 혁명의 핵심세력인 노동자 · 농민 · 사무원을 중심으로 당 · 정권기관 · 군대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북한지역을 통일국가의 '민주기지'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집단군총사령부와 노동당이 내부숙청을 집행한 시기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당이 유일당증 수여사업을 시작하자, 지방당에서는 입당서류 불명 등 경미한 위반자를 출당시키는 좌경적 오류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5개 도의 당증수여사업 통계표에 따르면, 당증수여사업 과정에서 당원의 9%가 출당되었는데, 출당자 중 70%는 "당사업에 태만, 불신임, 우연히 당에 가입한 자"라는 이유로 출당되었다. 당중앙상무위원회는 당증수여사업이 좌경적으로 진행되자 1946년 12월 27일에 제18차 회의를 개최해 당증수여심사를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고, 출당심사결과를 재심사해 오류를 조속히 시정하라고 지시하였다.[64]

1947년이 시작되었을 때, 북조선로동당은 숙청사업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숙청의 폭을 줄이고 있었다. 그러나 집단군총사령부는 오히려 유일당증 수여사업이 종료된 1947년 3월부터 숙청사업을 개시하였고, 사단군관 중 13.4%를 숙청하였다. 또한 노동당이 2개월 동안 숙청사업을 전개했음에 비해, 집단군총사령부는 1947년 말까지 10개월 동안 숙청사업을 지속하였다.[65] 집단군총사령부의 숙청대상은 일본군 · 만주군 출신, 친일파, 지주 · 부르주아계급, 민주당원 · 청우당원이었다. 집단군총사령부의 내부숙청은 반제투쟁(일본군 · 만주군 · 친일파)과 반봉건투쟁(지주계급)을 넘어서 타 당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들을 대신해 충원된 인물들은 군사학교 졸업생, 노동당 간부, 소련군사고문 통역관 등 친소 · 친노동당적 인물들이었다. 결국 1947년 동안 군대는 노동당에 비해 반제 · 반봉건투쟁을 더 철저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

64) 「평안남도 및 각도 당단체의 당증수여사업 진행정형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1946년 12월 27일), 『사료집』 30권, 93-95쪽.

65) 북조선로동당이 다시 입당자격을 엄격히 설정해 당원을 정예화한 시기는 1948년 3월 27일 제2차 전당대회 시기이다. 노동당은 제2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해 입당자격을 강화하였다. 필수적인 2명의 입당보증인은 당년한이 1년 이상이고 피보증인과 적어도 1년 이상 함께 사업하면서 서로 아는 사람이어야 하며 피보증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받았다. 「북조선로동당 규약: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1948년 3월 27일), 『사료집』 1권, 467쪽.

Ⅴ. 맺음말

1947년은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던 한 해였다. 북조선로동당은 해방 직후에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하고 전체 민족의 통일전선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노동당은 1946년도 토지개혁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후부터 제국주의·봉건세력에 대한 투쟁을 넘어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반혁명투쟁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1946년 말에 추진한 당증수여사업이 좌경적으로 진행되자, 1947년부터 숙청사업을 재검토하고 숙청의 폭을 축소하였다.

집단군총사령부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 중이던 1947년 5월 17일에 창설되었다. 집단군총사령부의 지휘부는 각 정치세력이 모두 망라된 정치연합체제였다. 그리고 총사령부에 새로 충원된 간부들은 모두 소련군사령부와 북조선노동당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노동당은 일제의 군대·경찰에 근무했던 인물들을 창군과정에 참여시킨 뒤에 1947년 5월에 열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이들을 축출하였다. 북한정치세력은 미·소 합의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앞두고 반혁명세력을 배제하고 북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위치를 강화하였다.

집단군총사령부의 내부숙청은 노동당의 숙청사업과 달리 반제투쟁과 반봉건투쟁을 넘어서 타 당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북한의 군대는 1947년 동안 노동당에 비해 반제·반봉건투쟁을 더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북조선로동당은 한반도에서 독립국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노동자·농민·사무원을 중심으로 계급구조를 재편하였다. 그들은 가장 먼저 집단군총사령부를 친노동당적 성향으로 개조함으로써 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력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북한정치세력이 국가 수립에 앞서서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을 공식적으로 창설한 것은 군사적 '민주기지(民主基地)'를 구축해 '국토완정(國土完整)'을 달성하려는 의도였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근로자』 제12호. 로동신문사, 1949년 6월 30일.

『北朝鮮法令集』. 北朝鮮人民委員會 司法局, 1947.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1 · 5 · 7 · 8 · 9 · 13 · 30 · 42권. 국사편찬위원회, 1982 · 1987 · 1989 · 1990 · 1992 · 1998 · 2004.

金日成, 『金日成 重要報告集: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樹立의 길』. 民主朝鮮出版社, 1947년 1월 1일.

김동화 외, 『연변당사 사건과 인물』. 연변인민출판사, 1988.

김석형, 『김석형구술자료집: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오!』. 선인, 2001.

김일성, 『김일성전집』 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북조선인민보안국, 『北朝鮮保安事業總結報告』. 북조선인민보안국, 1946년 11월 19일, NARA, RG 242, SA 2010, Box 미상, Item 15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北朝鮮人民會議 第一次 會議 會議錄』. 勞動新聞社, 1947.

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館 編, 『延邊大事記』. 延邊大學出版社, 1990.

전현수 역, 『북조선주재 소련민정청 3개년사업 총결보고』 1권(정치편).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결전』. 민족출판사, 1991.

최해암, 『조선의용군 제1지대사』. 료녕민족출판사, 199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한상구, 「팔로군 출신 방호산 사단 정치보위부 최태환의 증언」. 『역사비평』 1988년 가을호, 1988.

G-2, HQ, FECOM,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HQ, FECOM, 1952. 7. 31.

2. 단행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해방과 건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2003.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조선전사』24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서동만,『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선인, 2005.
柴田政義,『東歐政治經濟史』. 인간사랑, 1990.
엄영식,『탈출: 죽어서야 찾은 자유』. 야스미디어, 2005.
장준익,『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장학봉 외,『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 경인문화사, 2006.
정설송 엮음,『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 정률성①: 그의 삶』. 형상사, 1992.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韓國戰秘史』中卷. 兵學社, 1977.
주영복,『내가 겪은 조선전쟁』1. 고려원, 1990.
중앙일보특별취재반 편,『祕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 중앙일보사, 1992.
최태환 · 박혜강,『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정부』. 선인, 2004.

3. 논문

기광서,「북한 무력 형성과 북소관계」.『中蘇硏究』28권 3호, 2004, 215-235쪽.
김광수,「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아카데미, 2006, 63-78쪽.
김광운,「전쟁 이전 북한인민군의 창설과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3-53쪽.
김선호,「해방 직후 조선민주당의 창당과 변화」.『역사와현실』61호, 2006, 279-311쪽.
_____,「해방 이후 북 · 중군사협력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軍史』102호, 2017, 115-150쪽.
김용현,「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82쪽.
최완규,「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북한체제의 수립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139-176쪽.

국 문 초 록

1947년은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던 한해였다.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직후에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하고 전체 민족의 통일전선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북조선로동당은 1946년에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 이후부터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1946년 말에 추진한 당증수여사업이 좌경적으로 진행되자, 1947년부터 숙청사업을 재검토하고 숙청의 폭을 축소하였다.

집단군총사령부는 1947년 5월 17일에 창설되었고, 총사령관은 김일성의 측근인 최용건이 맡았다. 집단군총사령부에 새로 충원된 간부들은 모두 소련군사령부와 북한정치세력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노동당은 부일협력자를 창군과정에 참여시킨 뒤에 1947년 3월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이들을 축출하였다. 북한정치세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앞두고 반혁명세력을 배제하고 북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위치를 강화하였다.

집단군총사령부의 내부숙청은 노동당의 숙청사업과 달리 반제투쟁과 반봉건투쟁을 넘어서 타 당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북한의 군대는 1947년 동안 노동당에 비해 반제·반봉건투쟁을 더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북한정치세력은 한반도에서 독립국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노동자·농민·사무원을 끌어들여 인위적으로 계급을 재편하였다. 그들은 가장 먼저 집단군총사령부를 친노동당적 성향으로 개조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력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투고일 2018. 6. 20.
심사일 2018. 7. 24.
게재 확정일 2018. 8. 27
주제어(keyword) 조선인민군(Korean People's Army), 북조선인민위원회(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북조선인민회의(North Korean People's Assembly), 보안간부훈련대 대부(Security Officer Training Headquarters), 친일파(Pro-Japanese group), 미소공동위원회(Joint American-Soviet Commission), 토지개혁(Land reform), 북조선노동당(North Korean Workers' Party), 조선민주당(Korean Democratic Party), 천도교청우당(North Korean Cheondogyo Youth Party)

Abstracts

Changes in North Korea's United Front and the Officers Policy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Headquarters, 1947

Kim, Seon-ho

The year 1947 was one in which North Korea made a drastic change in the nation-building process. After the liberation,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pursued the united front of the entire people except for pro-Japanese and national traitors. Yet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NKWP) declared a struggle against those in opposition of the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after the Joint American-Soviet Commission was held in 1946.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Headquarters (NKPAH) was formed on May 17, 1947, and Choi Yong-Geon, an aide of Kim Il-Sung, was appointed Commander-in-Chief. The cadres at the headquarters were newly recruited from those who could be trusted by Soviet military commanders and the North Korean political leaders. After the inclusion of pro-Japanese forces in the founding of the North Korean army, the NKWP abandoned them in March 1947, ahead of the second Joint American-Soviet Commission.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narrowed the spectrum of the united front and strengthened the NKWP's leadership position in the face of resolving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Unlike the NKWP, the internal purges of the NKPAH were expanded to other members of the party beyond the fight against anti-imperialist and anti-feudal struggle. In 1947, the North Korean army waged a more thorough and steady anti-imperialist and anti-feudal struggle than the NKWP.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moved first to establish a military base to carry on the revolution by transforming the NKPAH into a pro-NKWP group.